

열왕기상 21. ‘나봇’의 포도원을 빼앗은 ‘아합’ (왕상 21:1-29)

들어가기

본 장은 ‘아합’ 왕이 탐심에 이끌려 ‘나봇’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. 당시 ‘이세벨’은 ‘아합’이 ‘나봇’의 포도원을 얻고자 근심하는 것을 보자 거짓 증인을 세워 ‘나봇’을 죽인 후, ‘아합’이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. 이때 하나님은 ‘엘리야’를 ‘아합’에게 보내어 저들의 죄를 책망하신 후, 하나님의 심판이 저들에게 임할 것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.

1. ‘아합’ 왕이 ‘나봇’의 포도원을 탐하였습니다. (1-4 절)

1) 먼저 오늘의 사건이 일어난 때는 언제인가요?

- 1 절 시작을 주목! -> ‘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...,’
- 본문 바로 앞 20 장을 보면 당시 아람 왕 ‘벤하닷’이 이스라엘을 두 차례나 공격해 왔을 때, ‘아합’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두 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됨!
- 그런데 이때 ‘아합’은 자신의 뜻대로 ‘벤하닷’과 화친을 맺고, 그를 놓아주면서 하나님께 책망을 들어야 했지만, 그는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화를 내며 집으로 돌아감!
- 그 후에!!

2) ‘아합’ 왕의 이스라엘 별궁 가까이에 ‘나봇’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. (1 절)

-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‘사마리아’였고, ‘이스라엘’은 ‘아합’ 왕의 별궁으로 사용됨.
- 나봇 -> ‘싹트다’는 말에서 유래한 이름
- 그는 조상 대대로 이스라엘 지역에서 포도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음.

3) ‘아합’은 ‘나봇’의 포도원을 좋게 보고 구입하고자 하였습니다. (2 절)

- 그런데, 이때 ‘아합’은 ‘나봇’의 포도원을 구입하여 자신의 ‘채소 밭’을 삼겠다고 함!!
- ‘채소’의 히/원 ‘야라크’는 ‘녹색의 풀’ 이란 뜻 + ‘밭’의 히/원 ‘간’은 ‘뜰, 정원’이란 뜻.
- 따라서 ‘채소 밭’이란 번역보다는 ‘푸른 정원’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할 듯!
- 참고로 왕궁 주변의 푸른 정원은 종종 우상 숭배의 장소로 사용됨 (사 1:29, 65:3, 66:17)
- ‘아합’은 ‘나봇’의 포도원을 얻기 위해 자신과 합의할 것을 요구하였음!
- 합의 조건 => 다른 포도원과 바꾸거나 돈을 받고 팔 것!
- 그런데 표면적으로 이 말이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한 말처럼 보이지만, 실제로는 왕권을 가지고 포도원을 넘기라는 요구에 불과한 것!!

4) 이때 ‘나봇’은 이런 ‘아합’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. (3 절)

- 그럼 ‘나봇’이 ‘아합’의 요구를 거절한 이유는?
- ‘..,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_____께서 금하실 것이기 때문!’

- ‘나봇’의 대답 속에서 우리는 그가 나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사람이었음을 알게 됨!
- 참고로 토지 매매와 관련한 율법 -> 레위기 25 장 23-28 절을 참조
 - ①. 우선 하나님은 원칙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였음!
 - ②. 그런데 가난하여 어쩔 수 없이 땅을 팔게 될 경우는 형제와 친족이 그 땅을 사게 함!
 - ③. 만약 형제나 친족이 그 땅을 대신 살 형편이 안 된다면, 땅을 산 사람은 희년이 될 때까지 사용하다가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땅을 돌려 주어야 함!!
- 곧 ‘나봇’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혹시라도 당할 어려움이나 위협을 각오하고 ‘아합’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것!

5) 그러자 ‘아합’은 근심하고 답답해 하며 돌아와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버렸습니다. (4 절)

- 4 절에 사용된 ‘근심하고 답답하여’란 말은 20 장 43 절에 사용된 단어와 같은 말!
 - 곧 ‘마음이 상하여 화를 내면서’ 돌아왔다는 것!
 - 분명 ‘나봇’이 율법을 들어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분하게 생각하며 돌아왔을 것!
- 그 후 ‘아합’은 마치 심통 난 아이처럼 침상에 누워 식음을 전폐했다는 것!
 - 이는 그가 얼마나 성속하지 못한 왕인가를 보여 주는 좋은 예!
 - 나아가 그저 욕심에 사로잡힌 인간의 추함을 왕이라도 별반 차이가 없음을 보여줌.

2. 이를 본 ‘이세벨’은 ‘아합’ 왕을 위해 ‘나봇’을 죽일 계락을 세웠습니다. (5-10 절)

1) ‘이세벨’은 이스라엘의 왕이 왜 식음을 전폐하고 무기력하게 누워 있느냐? 물었습니다. (5 절)

-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타이르듯이 ‘아합’의 상태를 확인하고 물은 것!

2) 이때 ‘아합’을 통해 ‘나봇’의 포도원 이야기를 들은 ‘이세벨’의 반응은 어떠했는가? (7 절)

- ①. 먼저 ‘아합’의 나약함을 지적하고 책망함! (7 절)
 - ‘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’
 - 곧 한 나라의 통치자가 그런 일로 어찌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냐고 책망한 것!
- ②. 자신이 ‘나봇’의 포도원을 왕에게 드릴 것이라고 약속함!
 - 7 절 후반부, ‘내가 이스르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’
 -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금하신 일을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장담한 것!
 - 결국 ‘이세벨’은 ‘아합’을 돕는 선한 배필이 아니라, 망하게 하는 악한 배필이었음!

3) 이후 ‘이세벨’을 즉시 ‘나봇’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기 위한 계락을 세웠습니다. (8-10 절)

- ‘이세벨’은 먼저 ‘아합’의 이름으로 ‘나봇’이 사는 성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냄.
 - 이때 그 편지에 인을 쳐서 보냄! -> 곧 ‘아합’ 왕이 직접 작성한 공문서로 보냈다는 것!

■ 그럼 그 편지의 내용은?

①. 먼저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게 함!

- 유대인들의 공적인 금식선포는 공동체 내의 죄에 대한 집단적 참회를 촉구하는 것!

②. ‘나봇’을 백성들 한 가운데에 높이 앉힐 것!

- ‘나봇’을 피고인의 신분으로 재판정에 앉힌 것!

③.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세워 거짓 증언을 하게 함!

- 거짓 증언의 내용은 ‘나봇’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는 것!

- 참고로 불량자 두 사람을 세운 것은 사람을 사형에 처하게 하려면 최소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율법의 규정을 지키기 위한 것! (신 17:6)

- 또한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거짓 증언의 내용 역시 율법대로 ‘나봇’을 죽이기 위한 계획이었음!

(참고로 율법은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저주한 자, 하나님의 뜻대로 세움 받은 자를 저주한 자는 사형까지 할 수 있는 죄! (출 20:7, 22:28)/ 예: 예수님)

- 그런데 이런 ‘이세벨’의 계략이 얼마나 모순되고 아이러니한 모습인가?

④. 그러므로 ‘나봇’을 끌고 나가 백성들과 함께 돌로 쳐죽이라고 명령함!

3. 결국 ‘이세벨’의 계략대로 ‘나봇’은 죽고, ‘아합’이 그의 포도원을 차지하였습니다. (11-16 절)

1) ‘이세벨’의 편지를 받은 장로들과 귀족들은 즉시 금식을 선포하고, ‘나봇’을 잡아 백성들 앞에 세운 뒤,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 죄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도록 하였습니다. (11-13 절)

■ 11 절에서 주목할 단어

‘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,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’

■ 재판의 목적이 무엇인가?

-> 옳고 그름을 따져보고 판단하기 위한 것! 그러나 저들은 그저 편지에 쓴 대로 움직임!

■ 그럼 당시 장로들은 이 편지가 ‘아합’이 아닌 ‘이세벨’이 보낸 편지란 것을 몰랐을까?

- No!!! 14 절을 보면, 저들은 ‘나봇’의 죽음을 ‘아합’이 아닌 ‘이세벨’에게 보고했음!!

- 곧 저들은 자신들이 맡은 직무를 온전히 감당하여 올바른 재판을 하기보다는 그저 ‘이세벨’의 권력을 두려워하며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했다는 것!

■ 참고로 열왕기하 9 장 26 절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‘나봇’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언급함!

- 따라서 당시 ‘나봇’만 처형 당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까지 다 몰살당했음을 추측!!

- 만약 아들들이 살았다면, 아들들이 아버지의 무죄를 주장하며, 조상들의 유업에 대한 권리를 율법에 따라 주장하게 되었을 것!

2) ‘나봇’이 계획대로 죽임을 당하자 ‘이세벨’은 ‘아합’에게 ‘나봇’의 죽음을 알리며 그의 포도원을 차지하라고 전하였습니다. (15-16 절)

- 15 절의 ‘나봇’의 포도원을 ‘차지하소서’라는 ‘이세벨’의 표현을 주목!
 - ‘차지하소서’ 라는 말은 히/원 ‘아라쉬’라는 말로 ‘이어받다’, ‘상속받다’는 뜻!
 - 당시 돌로 맞아 죽은 범죄자의 소유는 (상속자도 없는 것!) 다 왕의 재산으로 귀속됨!
 - 따라서 ‘아합’은 합법적으로, 마치 어쩔 수 없이 ‘나봇’의 포도원을 차지하였다는 것!
 - ‘이세벨’의 지혜가 대단하지 않은가?
- 이때 16 절 주목! -> ‘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’
 - ‘아합’은 ‘나봇’이 왜 갑작스럽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음!
 - 오직 그의 포도원을 차지하는 일에만 온 마음이 집중되었음!

4. 이때 하나님은 ‘엘리야’에게 가서 ‘아합’의 죄를 책망하라고 명하셨습니다. (17-29 절)

1) 19 절 주목해 보면, 이때 하나님은 ‘아합’에게 ‘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’고 책망하셨습니다.

- 여기서 ‘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?’란 말의 원어적 의미는 ‘죽인 것도 모자라서 또 강도 짓까지 하며 빼앗아야만 했는가?’ 라는 탄식의 말!
- 결국 ‘아합’은 우상 숭배의 죄 +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 + 선지자들을 핍박 + ‘벤하닷’과 화친 + 그리고 살인과 강도의 죄까지 저지르며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충분해짐!
- 하나님은 이런 ‘아합’도 ‘나봇’이 당한 것처럼 똑같이 비참한 죽임을 맞게 될 것이라 선언!

2) 오랜만에 ‘엘리야’를 만난 ‘아합’은 ‘엘리야’를 보자마자 자신의 대적이라고 불렀습니다. (20 절)

- 이는 평소 ‘아합’이 얼마나 ‘엘리야’를 적대시 했는지를 알게 함!
- 참고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자신의 대적으로 보는 이에게 무슨 은혜가 임할까?
- ‘아합’은 자신 앞에 나온 ‘엘리야’에게 자신을 찾았냐고 물었음!
 - 여기서 ‘네가 나를 찾았느냐?’는 말은 히/원 ‘마차’는 ‘발견되었다’는 의미로, 갑작스럽게 자신 앞에 나타난 ‘엘리야’를 못마땅히 여기는 ‘아합’의 심정을 나타낸 말!
 - (ex: 왜 하필 또 이 원수에게 발견되었나!)

3) ‘엘리야’는 ‘아합’의 죄를 차근차근 지적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였습니다. (20-26 절)

- ①.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음!
 - ‘네가 네 자신을 팔아’란 말은 ‘스스로 자신을의 노예 상태로 만들었다’는 말!
 - 곧 ‘아합’ 스스로가 ‘나봇’의 포도원을 탈취하기 위한 탐욕의 노예가 되었음을 지적!

- ②. 하나님께서 ‘아합’에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매인 자나 놓인 자나 다 멸하실 것!
- 종이든 자유인이든을 ‘아합’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멸하실 것!
- ③. ‘아합’의 집이 ‘여로보암’의 집과 ‘바아사’의 집처럼 되게 하실 것!
- ‘여로보암’과 ‘바아사’ 모두 자신의 왕조를 열었으나 불과 2 대를 못 넘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문지화(滅門之禍)를 당하게 됨! (둘 다 부하들의 반란을 일으켜 망함!!)
- ④. ‘아합’이 저들처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노하게 하고,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만들었기 때문!
- 22 절의 ‘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’의 원어적 의미는 ‘점점 더 격분하도록 자극했다’는 뜻!
- ⑤. 나아가 ‘개들이 이스르엘 성읍 곁에서 ‘이세벨’을 먹을 것이라 예언!
- ‘이세벨’의 최후가 결코 명예롭지 못한 저주 받은 최후가 될 것임을 예언하심!
- ⑥. ‘아합’에게 속한 자들도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, 들에서 죽은 자는 새가 먹을 것!

- 이처럼 무서운 심판이 ‘아합’과 그의 집에 임하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? (25-26 절)
- 그가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!
- 그렇게 된 것은 그의 아내 ‘이세벨’이 그를 충동질 하였기 때문!
- 그 결과 ‘아합’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영구히 쫓아내신 ‘아모리’ 사람처럼 우상을 숭배하며 악을 행하였음!

-> 이는 곧 ‘아합’의 악이 ‘이세벨’을 통해 ‘극대화’되어 더 큰 악으로 나타났음을 설명!
-> 그래서 성경은 애초부터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가르침!

- 4) ‘엘리아’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들은 ‘아합’은 뉘우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. (27 절)
▪ 옷을 찢고, 굵은 베로 몸을 동이고, 금식하고, 굵은 베에 누우며, 풀이 죽어 다님!
▪ 곧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들은 후, 뒤늦게나마 뉘우치고자 했다는 것!

- 5) 하나님은 이런 ‘아합’의 자세를 보시고, 그에게 내릴 심판을 아들의 집에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(28-29 절)
▪ 29 절에 사용된 ‘경비함’이란 말의 히/원 '카나'는 '꺾이다', '복종하게 되다'는 뜻!
- 곧 ‘아합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 기세가 꺾이고, 나를 하나님께 복종하려 한 것!
- 여기서 다시금 ‘아합’의 아내 ‘이세벨’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던가? 를 생각하게 함!

- 참고로 29 절의 ‘아합’이 받을 심판이 아들에게 넘어간 것과 관련하여 몇몇 학자들은 신학적 문제를 제기함. (그래서 신학적 해석상의 난제구절로 여김)
-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 + ‘아합’의 아들인 ‘여호람’ 또는 ‘요람’의 죄와 연관되어 생각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!

4. 오늘 내용을 통해 새롭게 깨닫거나 결심한 내용이 있다면?

5. 중보기도 나눔